



작은학교 어린이들 첨단 전자도서관에서 책 읽고, 대화하고, 숙제하고



작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정보화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작은학교 전자도서관 세워주기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최근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와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윤옥이)은 김포의 풍무초등학교에서 경기도내 175개 작은학교에 대한 전자도서관 기증식과 개관식을 가졌다.

풍무초등학교 <http://www.pungmu.es.kr> (교장 권상도, 지도교사 이윤미)는 지난 4개월 동안 안정성과 유용성 검증을 위해 다이나폴리오 전자도서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에 개관한 전자도서관은 책읽기 문화와 독서문화를 두텁게 하는 마당을 열었다는 점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우선 출판계와 교육계가 놓여준 어린이들을 위해 공동의 문화사업을 하는 데 합의, 결실을 맺었다는 점이다. 전자도서관 기증대상을 6학년 이하 학교로 설정함으로써 도시 어린이들에 비해 독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전자도서관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열람 편의성을 높이고, 인터넷상에서 개인 지식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e-book 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자신이 대여해 온 전자책에 메모, 밑줄긋기, 형광펜 사용 등이 가능해 종이책으로 독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끼리 서로의 독서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기능, 교사의 독서지도와 도서관리 시스템을 내장한 것도 작은학교 도서관 시스템의 장점으로 꼽힌다. 이는 전자책 표준언어인 XML을 바탕으로 한 다이나폴리오시스템에 전자책을

대출 반납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저작권을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사이버 안방 도서관 형태인 셈이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주식회사 워드씨피엘(<http://www.word-cpl.com>)은 "작은도서관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리적 한계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어린이들을 위해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3년여 전부터 개발해 왔다"며 이 시스템이 e-book 독자를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증사업의 또 다른 중요성은 출판문화단체와 기업, 교육계가 공적 기능을 하는 데 충실했다는 데 있다. 이 사업에 투자된 비용은 모두 19억여 원에 달한다. 전자도서관 솔루션과 함께 5백 종의 책 2,500권이 기증되어 1개 학교당 1,100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됐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대한출판문화협회, 120여 출판사, (주)워드씨피엘, (주)에스제이엠(대표 황종연) 등이 모두 지원했다.



한편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자도서관 기증행사를 주관한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정일 회장은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하기 쉬운 농어촌 어린이들에게 뛰어난 전자도서관 환경이 마련된 것이 무엇보다 흐뭇하다"고 밝혔다. 또한 솔루션 등 작은도서관 시스템 개발 작업을 수행한 워드씨피엘과 에스제이엠사는 "작은학교 전자도서관 사업을 계기로 전자책 기술개발이 한단계 높아졌다고 자부한다. 특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가동할 경우 폐기될 수도 있는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서버(H/W)를 재활용함으로써 1,500억 원 수준의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왔다."며 컴퓨터 산업의 산학협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

임동현 기자